



# 가족계획 소식

— 요원을 위한 —

<월간·제 8 호>

발행인: 총 관  
편집인: 김 용 환  
인쇄인: 김 태 동

발행소: 가족계획연구원  
서울서대문구 늑대동 115  
(우편번호 120-02)

⑧ 8003 ~ 7

1974. 5. 31. 등록  
판-1793호

[1] 1975년 1월 15일

오늘 우리나라의 인구는 총 3천 4백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9만 8천여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의 하나이다. 8·15 광복 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동포의 남하 등 사회적이동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후 6·25 전쟁으로 일시적이거나 정체(停滯)되었던 인구증가는 휴전과 더불어 헤어졌던 젊은 가족의 재결합과 억제되었던 적령기 남녀의 결혼사태로 아기 풍운을 이루었고 그 결과 195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3%란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높은 인구증가율은 국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전후(戰後)의 복구작업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제동요인(制動要因)으로 잠재해왔다.

이러한 인구문제를 적시한 정부는 1961년 인구조절정책을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채택하여 이를 광범위하게 수행해 올으로써 1974년에 이르러서는 인구증가율을 1·6% 수준으로 크게 저하시켜 이는 발전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일찌기 그 유례를 찾을수없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같은 정부의 선각적인 정책은 크게 진화하여 교육·보건·주택 등 국민복지향상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지난 10년간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할수있는 기반을 다졌다. 것

이다. 그러나 식량·원자재·에너지 등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많은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우리국은 대부분이 산림지대이며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세계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하여 천연자원의 개발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1981년도 인구증가율 1·3%를 계획대로 달성한다면 자원과 함께 사회건설을 위한 선진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멀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의 인구대책은 교육·보건·고용·주택·환경·사회보장 등 국가경제 및 사회개발의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보다 강력하고 차원높은 정책에 의한 인구의 절진적 안정성이 일련의 문제 해결의 첨경임을 확신한다.

한편 최근 세계인구는 연평균 2%의 높은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어 글세기 말에는 무려 7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류사상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더욱 심각하여 세계도처에서 식량난을 빚어내고 있으며 질병·질병·인간의 기본생활을 위협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면 하단으로>



<2면 하단에서 계속>

## 선언(宣言)

우리의 여망인 고도의 경제성장과 균형된 사회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죽적인 인구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의 해결에 사회 각계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 천부의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식량을 증산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자연을 보존해야 할 초미(焦眉)의 과제를 안고 있는 바이는 인구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소가족 구성을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가정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자녀수의 결정은 부모의 기본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이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숙지(熟知)하고 또 생활화하여야 한다. □ 출산과

◇ 작년 12월 20일 드라마센터에서 열린 인구대회 때 <선언문>이 채택 (사진은 <인구대회선언문>을 낭독하는 흥종관 가족계획 연구원장).

양육에 얹매여 생산적인 사회참여의 제한을 받아온 여성에게도 더욱 경제·사회·교육 등 제분야에 균등한 기회를 주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 인구문제는 전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느끼고 그 대책수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 인간생명을 그시초로부터 존중하려는 가족계획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려는 생활운동인 바. 이운동이 지향하는 「불낳기」에 국민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이러한 거시적(巨視的) 인관찰은 우리의 번영은 물론 후손들에게 영

광된 유산을 남기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강구될 것을 제기한다.

1. 종합적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2. 국민의 전통적인 의식 구조와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구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가족계획을 더욱 생활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4. 합리적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근대적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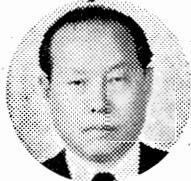
5.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욱 적합한 가족계획방법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1974년 12월 20일 인구대회주체단체일동

<관련기사 8면 참조>

## 74년도 가족계획사업 회고

### 보람과 아쉬움 속에서



김용완 부원장

1974년에 가족계획사업에서 얻은 큰 성과는 UN이 이해를 「세계 인구의 이해」로 정하고 그 세계회의를 통하여 전 인류가 인구의 증가라는 크나큰 문제에 새로운 경각심을 갖고 행동계획을 세워 인간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고 선언한 것이다. 이 계획의 많은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추진시켜 왔던 일로서 지난 10여년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널리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어 우리에게는 그다지 새로운 계획은 아닌 듯 하다.

그러나 사회각계각층에게 인구

및 가족계획이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주의와 체제를 초월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을 주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소득이다. 또 이 문제의 이해 결이 가족계획의 분야에서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 것에 더욱 보람과 이의가 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아끼고 키워놓은 우리의 터전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듯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일하던 환경이 초기창기에 비하여 그리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던 어려움 속에서 굳은 신

념파 벽을 굽지로 일하여 왔던 우리들이기에 이 아쉬움은 더 큰 것 같다.

옛말에 <고기를 낸 후에는 낚시의 소중함을 잊게 되고 학문을 끝난 후에는 책의 귀중함을 잊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 근본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수단이 된 방법을 잊게 된다는 것을 허게하여 비유한 말이기에 우리로서는 이 말에 더욱 웃음을 갖게 된다.

법제계적으로 인구와 그에 관련된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모든 면에서 그 대책이 고려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을 결코 경감 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의 더 굳은 결의와 노력만이 1974년의 이와 같은 소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야 한다.

<글·당원 김용완 부원장>

## 연소자와 노령자의

부양인구(扶養人口)란 쉽게 말해 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이상 65세이하의 노동인구에 비해 그들의 부양을 받아야 할 연소자와 노령자를 말한다.

인구를 연령별로 나누어서 특수한 연령층의 인구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매우 다양하다.

전시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사정이 좋은 선진국에서는 100명의 노동활동인구가 57명의 연소자와 노령자를 받들고 있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81명이나 부양해야 하므로 훨씬 많이 들게 돼 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피부양대상자의 구성을 보면 노령자에 비해 연소자군(群)이 대다수를 절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개발도상국의 높은 출생率에 의한 급속한 인구성장의 결과인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가 이를 연소인구군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국민소득을 올리는 데 필요한 막대

### 지상전시실 (6)

한 자본과 자원이 기존인구 또는 증가된 인구의 부양에 들어가고 만다. 특히 연소인구군은 가계(家計)의 교육부담을 과중시켜 고등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떠나게 해서 기술진보에도 장애가 된다.

교육 받지 못하고 기술훈련도 습득지

가되지 않으며 또한 인구는 출생과 동시에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14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출생과 노동력공급 사이에는 15년의 시차(時差)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15년동안 이를 연소인구군을 먹이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부담이 요구되어

<글·당원 김봉술 훈련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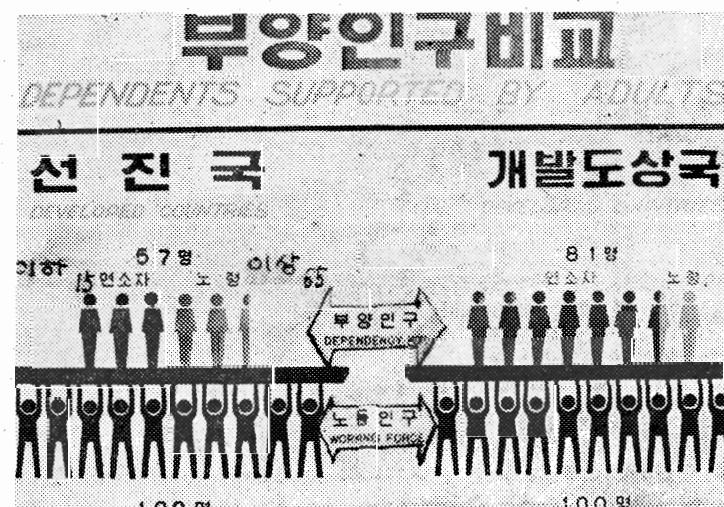
### <1면에서 계속>

반면에 선진국가에서는 고도 소비성향에 따른 절박한 자원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파적으로 세계 각지역 및 국가간의 식량·자원·인구에 대한 상호모순과 불균형을 빚어내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국제 사회의 진정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으며 세계 평화없이는 우리나라의 안녕과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연합이 금년을 「세계인구의 이해」로 정하고 법제계적으로 인구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이러한 세계적인 공동파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각오와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하고자 인구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면 하단으로/>



◇ 잘 살 사는 나라는 국민소득의 전부가 어린이나 노인의 부양부담에 들어가고 만다.

못한 인구군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실업자로 취급받게 마련이다.

원래 인구는 노동력공급의 근원이 되어 경제개발의 기본요인으로 등장하지만 그 나라 경제구조에 적합한 노동력공급이 가능해야 경제개발에 해

## 타일랜드

## 외국가족계획④

50년전 태국의 인구는 불과 6백만이었다. 이때쯤은 「낳는대로 놔두라!」는 식이었다. 이런 태국의 총 면적은 51만 3천 4백 60평방킬로미터.

UN 조사에 의하면 총인구는 3천 9백 90만에 인구증가율은 3.3%이다.

그러나 작년 7월 하기인구문제 세미나에서 태국의 니사 비차판이 당원에서 발표한바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은 2.2%이다. 그에 의하면 과거 태국의 인구정책은 출생률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인구증가정책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갑자기 인구억제정책으로 바뀌어졌다. 1959년 세계은행에서 태국인구증가가 사회·경제발전에 끼치는 위협을 보고한 이후 비로소 인구정책을 바꾼 것이다. 이때 세계은행 사절단과 태국 경제기획원의 견의에 따라 「인구교육연구센터」(1960)가 출라통 콘대학에 설립됐다.

68년에는 이센터에 인구통계학 석사과정을 신설했다. 1971년 3월에는 인구정책이 공포되고, 보건성은 가족계획사업 수행 주무부처로 공인됐다. 태국은 인도지나 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왕국이다. 주민은 타이인이 약 97%, 중국인이 3% 이상이다. 이를 인구는 거의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60년대에는 12.5%가 도시에 살고, 나머지는 시골 50년전에 거주했다. 그러나 12.5%가 14.3% (67년도)로 도시인구가 증가, 뱅코크—돈불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60년도 현재 태국국민의 95%가 불교신자, 남쪽의 4개도에 사는 주민 4% 미만이 모슬렘, 1% 미만이 기독교인이다. 문맹률은 15세이하 어린이가 45%, 18세 이상이 40%나 미취학이다. 60년에 조사한 바 10세 이상의 30%가 문맹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인구는 1980년대에 가서 5천 4백 30만으로 육박, 이는 1960년대인구 (2천 7백만)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률은 6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1천명당 11명, 태국정부에서는 1천명당 8명으로 보고 있다.

평균사망연령은 37년도에 35세, 64~66년도에 남자 55세, 여자 62

## 인구증가정책으로

세로 늘었다.

출생률은 유엔통계에 의하면 60년대 인구조사전까지 1천명당 45~50명. 이런 추세는 2차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20세기의 근 60년을 지속했다. 타이정부통계로는 60년 현재 1천명당 40명에 육박.

태국의 출산률은 1969년 현재 줄지 않고, 여성들은 평균 6·5명의 아이를 가진다. 결혼연령이 21~24세 (47~60년도)로 높아졌는데도 출산률은 역시 증가.

보자사망률은 과거 20년 (49~69) 동안 급격히 줄었다. 신생

50년전 태국의 한내부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꿩보다 인구가 너무적다. 우리나라의 넓은 땅은 현재인구의 5~6배정도로 생활수준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국가발전은 나라사람수에 달려있다. 국방면에서 볼 때 인구증가는 군인의 수를 늘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구증가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상업·필생품과 봉사업무를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공업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얼마되지 않은 오늘날 태국은 인구증가정책이 아닌 인구억제책을 쓰면서 가족계획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아사망률은 1천명중 85명, 산모사망률은 1천케이스당 4명이다.

정부에서는 루우프나 먹는 피임약을 무료로 공급하지만 성금은 받는다. 의사에게 가족계획 시술 수당도 주지 않는다. 월말 가족계획관계보고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한다. 새로 IUD나 먹는 피임약을 수락하는 인구와 IUD 제거수술 등은 계속 가정방문으로 관찰·권유한다.

인구 및 가족계획관계 기관이나 단체로는 국가통계국 (NSO) · 인구통계부 (보건성에 설치) · 국가경제발전위원회 (NEDB) · 국가연구위원회 (NRC) · 공중보건교수단 · 인구사회연구소 (PSRC) · 태국가족계획협회 (FPA) 등이 있다. FPA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8년에 창설했다.

여기서는 IUD 등 종래 사용하던 피임기구를 도시와 농촌등 선정된 지역에 공급, 외부지원은 거의 없다. 자조독립단체로 협회장이나 사무총장은 태국가족계획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FPA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

부사업과는 직접 협조하지 않으나 의사 표시의 의혹은 보여준다. IPPF (국제가족계획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지금까지 태국은 루우프시술을 10만건이상 했으나 사실 클리닉에서 시술한 데이터는 알수 없다. 10만건 중 반 이상이 뱅코크의 의료시설에서 시술했다. 먹는 피임약도 계획적으로 공급추진하고 있으나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아국에서 월평균 15만주기가 팔리는데, 반이 뱅코크에서 차지한다.

IUD는 의사가 직접 시술한다. 요원에게 루우프를 시술시킬 교육계획은 69년도 현재 아직없고, 정부는 의사의 처방을 받으라고 권하지만 잘 되지않는다. 피임약은 언제든지 시중 구입이 가능하다.

불임시술도 정부산하 병원에서 자주하며 개인병원에서는 불임시술을하는 예가 거의없다.

옛날부터 <불임시술 하지 말라>는 관념이 아직도 작용한다. 5명 이하의 여자를 가진 여자는 불임시술하는 예가 거의 없다. 여자는 연 1만명, 남자는 연 2만명 정도 불임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가입여성 4백만명 (20~44세) 중 6%가 현대식 피임기술에 응하고 있으나, 법전에 의하면 입신부가 건강상 필요할 때만 유산이 가능하다. 불교국가라서 합법화되어도 의사자신이 마지못해 인공임신중절을 하게될것으로 예측된다.

태국의 가족계획사업을 원조하는 국제기구는 PC·AID·UNICEF · 포드재단 · 록펠러재단 · 패스파인더 재단 · 브리쉬재단 · 중국의료위원회 (CMB) · 세계교회 봉사단 등이다. 태국은 42년도 보건성 창설식에서 「인구 1천 8백만의 3천 6백만개 일손은 국가부흥을 위해 부족하다. 우리가 정말 부흥발전 할려면 2억 이상의 일손 (인구 1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억의 3분지 1단계에서 도리어 줄이지 못해 애쓰고 있다.

2차대전 당시 태국은 보건성장관이 결혼증진위원회를 임명·전국적으로 집단결혼식 등을 촉진, 조기결혼을 시도했다. 이때 슬로건은 「젊어서 결혼하여 국가번영시키자」였고, 대가족보너스를 주기도했다.

<글·담원 국제훈련과 신회설>

50년전  
인구  
6백만  
현재  
4천만  
경고  
세계은행이  
인구  
위협  
처음  
경고  
안  
줄어

&lt;수 편&gt;

## 딸 다섯 낳는 진통

최 영 림



어느 날인가 산실에서의 일이다. 산모의 비명은 신음 정도로 그칠 성질의 것이 아니 성실했다.

누가 얘기 했던가? 「지상 최대의 고통」이라고. 아직 당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산모들의 피로운 표정과 아우성만 들어도 넉넉히 그 고통이 짐작된다.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는 역시 강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터다. 산모 중에도 뛰어나게 잘 참고 견디는 여인을 가끔 볼 수 있다.

어느 날 산실은 이외로 조용했다. 딸만 벗으면 어머니가 다섯 번째의 분만을 눈앞에 두고 아픔 같은 것은 업무에도 없는 듯 아들을 기다리는 표정이다.

진정 아들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겪어낸 진통의 결파는 또 딸이었다. 이진통은 또 딸을 낳게 된 뒷마음의 견딜 수 없는 고통파는 견줄 수도 없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 모양이다.

나는 땀히 치솟는 울분을 참지 못해 애를 썼다. 다같은 여자이기 때문일까?

「도대체 다섯째 딸을 낳고도 또 아들을 기다릴 작정인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풍습이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소리한 번 지르지 못하는 그 산모를 봐서라도 어서 빨리 가족계획사업이 잘 돼야 할텐데....

<남아선호사상>은 없어야 한다. 딸도 아들 못지 않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땅에 인식시켜야 할 때가 이미 늦은 감이든다.

과연 내가 딸만 있는 집에 가서 <이제 그만 낳고 딸이라도 잘 기르라>고 권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농촌에서는 그러다가 육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오히려 서둘게 계몽하다가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듯하다.

<아들이 있어야만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관념이 국민들로부터 사라지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런 일은 힘들 것 같다.

이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과 계몽이 절실히 요구된다.

&lt;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사무소&gt;

## 요원들의 광장

&lt;요원의 시&gt;

## 겨울여행

권 오 선

눈꽃이 차분히 내리는  
의진 두메 오솔길  
한겨울 추위를  
웃깃으로 받아가리네

또 만나야 할 사람들  
순이 엄마  
분이 아빠  
기다릴 사람은 없어도

늘 만나야 할 사람들  
외딴 두메 오솔길에  
내리는 눈  
눈은 내려도

하얀길에 수놓이는 발자욱  
발자욱 따라 길은 멀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저녁연기  
눈쌓인 초가지붕을 기어오르네

따가운 칼날바람  
내 살결을 도려내가도  
보람으로 흔적되는 이 발걸음  
기다릴 사람은 없어도  
한결 튼튼한 겨울여행이네.

&lt;충북 충원군 산척면 보건지소&gt;

## 잃어버린 계절

김 용 설

머무르고 싶었던 그날그날이  
눈물로 밀려 되돌아보는 시간들  
희미한 그 먼-자리에  
차가운 땅위로 굴러가는 외로운 일색,  
나!

그 위로 아픈 계절을 밟고간다.

마일간 하늘에 번지는 너와의 속삭임,  
또한 말없는 시간 속에 묻혀버리고  
나!

또 하나의 슬픔을 밟고간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살고 싶다.  
항상 소리가 없는 곳에  
나는 머무르고 싶다.

계절이 가버린 텅-빈 하늘  
가보이지 않는 곳이기에  
한가닥 미소를 짓으며  
나!

이렇게 눈물을 마시며 오늘을 산다.

&lt;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보건지소&gt;

아들 낳으면 자동차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

## 조 분

자식에 대한 관심도 이젠 변  
킬 때가 됐다. 아들이면 어떻고  
이면 어떤가? 남아선호사상(男  
好思想)을 허물어야 가족계획이  
조롭게 되어갈 것이다.

항간에는 아직 아들이 제일인  
각하고 있다. 옛말에도 부귀다  
貴多男)이라 하여 무조건 잘  
를 바라고, 아들이 많은 것을  
것으로 알았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 젊은  
에서 퇴치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남아선호사상이 오늘날 조금은  
화된 것 같다. 딸도 자식이라는  
식이 점점 짙어 가고 있다.  
에서 노력하는 여성지도자들의  
여권신장에 큰 역할을 한 건  
이다. 이만큼 여권이 신장되었기  
대이후 여성지도자들의 피와 땀  
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말을  
주 듣는다.  
『아들 낳으면 자동차  
타고, 딸 낳으면 비  
행기 탄다』—딸이  
려 좋은 데로 시집  
가서 부모를 초청한  
을 비행기표를 사

도 있다는 것이다. 늘 가까이 있는  
들은 기껏해야 자동차 (혹은 자가용)  
를 태워준다는 말이다. 파악은  
듯 하다. 이쯤 되면 <남존여비>  
<여존남비>로 변해야 할까? 아예  
발자식도 귀할수 밖에 없는 시  
와 있다. 누가 지금 <남존여비>  
으로 외칠 수 있는가? 시대가  
<남녀동등> 문제는 자연 해결되  
밀는다.

발자식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만  
우면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어머  
가 되어 다시 여권신장을 위해  
력을 것이다.

구태여 딸·아들을 구별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 30년 후의 자식 (여  
아들)들이 얼마나 부모를 잘  
겠는가? 다 뿐들이 헤어져 소  
단위로 살아갈 것이다. 사회적으로  
모들의 노후대책만 서 있으면  
여자식이 모시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아들의 우상  
를 벼려야 된다. 「자식 하나  
자립시키기 까지는 7백여만원이

# 의 광장

하지만 실제 그 이상이 들

들여 키우기만하면 되는가? 아파듯한 부모의 정, 가정교육이 필요하다. 그저 낳아놓기만하면을 복이 생기는건 아니다. 옛이다. 자식은 충분한 사랑과 애 키워야 한다. 참다운 사랑은 교육이 된다.

&lt;경북 영주군 순흥면 사무소&gt;

답

장티푸스 가족에게……

김 이 순

가 생겼다는 집은 다 쓰러져 초가였어요. 그 초갓집을 들어 때는 <빼빼> 마른 환자 한명이었습니다. 가족은 아들·딸이 5 부모를 합해 모두 7명이고요. 특히 환자의 아버지는 5년 전 판절제시술을 받았대요. 자녀가 때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꿈 할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어째 지 다섯 자녀일까요?

을 자른 후 5~6회간 (섹스)

콘돔을 쓰든가, 먹는 피임약을

나온가, 어쨌든 피임을 계속해야

네 이 걸 글쎄 안해서 그렇

요. 덕분에 망내아기 하나 더

셈이지요.

데 이 집에는 논·밭이라고는

&lt;원고 모집&gt; .....

요원들의 광장」은 여러분의 광장입니다. 일선계동활동중 느낀 감각·체험담·수필이나 시(詩)를 원고지 5매 이내로 써서 광장 같이 보내주세요. 「가족계획」 편집실에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목소리(문예작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t;편집실&gt; .....

도 없어요. 큰 아드님이 열아리자지만 겨우 벌이에 나간것이 당 심부름꾼이랍니다. 부모는 말이로 그날그날을 연명해 나가

일이지요? 식당벌이를 한다는 이집 큰 아드님이 바로 장티푸스에 걸려와서 아랫목찾이를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약이다. 주사다. 부탁 소독이다 하여 전염없이 이제회복기에 접어들

었지만 먹을것이 없대요. 살 환불도.

장티푸스 가족이라해서 출입을 금했기 때문이에요. 벌이를 못했죠. 뷔. 이사실을 만나는 돌아와서 면장님께 말씀 올렸어요. 면장님과 보건지소장님, 직원 일동이 현금과 위문품을 모았어요. 나는 이 성의껏 모인 물품과 돈을 들고 다시 그환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꽤고단 앉았다가 내가가니 온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서 어쩔줄을 몰랐어요. 환자 어머니는 「식모살이라도 나가야겠다」고 하는군요. 이말을 듣고는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lt;전북 정읍군 내장면 사무소&gt;

임지도원을 주축으로 지도원 11명 (간호원 6명, 간호보조원 5명), 오원 14명 (간호원 3명, 간호보조원 10명, 사회사업원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가장 원만한 팀웍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김재환사무장은 가족계획사업에 솔선수범, 자신이 직접 산업장에 나가 계몽을 펴는 등 요원못지 않게 어 사업을 강력추진하는 본보기를 보여 요원들의 사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

동보건소는 예방접종시에까지 가족 계획사업을 병행실시하고 있지만 역시 애로는 많다.

「도시인 만큼 기동력이 문제인데, 대전시에 이동시술차 한대 없이 지금껏 가족계획을 해오는 요원들의 고충이 너무도 크다.」 가족계획사업만 10년을 말아온 동보건소 신청례모자 보건계장의 말이다. 무엇보다도 일선 요원들의 연간 이직율이 7~4%나 된다. 척우개선문제때문에 요원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도시가족계획사업은 춘분적으로 그 방법이 검토되어야겠어요. 종래 담습해온 가가호호방문에 의한 계통방법도 재고해야겠고 피임방법도 자궁내 장치보다는 정관질제술이 더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계획과 정에서부터 감안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인식은 원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종래의 계통방법을 탈피, 보다현대화된 장비에 의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주는 것이 도시가족계획사업의 진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일선요원들의 얘기다. 오늘은 「인구의 해」가 마지막가는 달의 토요일 오후인데도 미처 손길이 뜯미친 잔무의 정리를 위해 자릴 지키고 있는 요원들의 모습에서 마가레트·싱거를 연상해 본다.

&lt;글·당원문현정보·이정주 참사보&gt;

【<보건소탐방>은 시도에서 추천하는 1개 관할 보건소를 찾아 시리즈로 엮는 난입니다. 충남에 이어 다음에는 전북 차례입니다. <편집자주(註)>】

## 보건소 탐방

(4)

충남도청 가족계획정책 황순석씨(黃順錫·51세)는 「도내 17개보건소 중 우수한 보건소도 많지만 날로 대도시화해가는 한밭(대전시)의 가족계획사업도 또 다른 특색을 지닐 것」이라며 추천.

김재환(金在桓·49세) 대전시보건소 사무장은 설명해 준다. 대전시의 면적은 8만 8천평방킬로미터. 인구는 46만 2천 8백 34명. 남자가 23만명에 여자가 23만 2천여명. 실가입여성은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전시 보건소의 가족계획사업은도 내 다른 시군보다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작년 한해의 목표량과 그 달성을. 작년도 목표량은 불임수술 3백 50건, 먹는 피임약 4만 4천사리를 끝냈다. 이 목표량에 의하면 실가입여성 1명이 연간 최소한도 45일 정도의 먹는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고, 자궁내 장치도 주민의 6분지 1정도 시술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전시보건소는 이 같은 팔목활만한 목표량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목표량을 초과달성을하고 있는 실정. 작년 1월말 현재 사업달성을률을 보면 불임수술의 경우 당초 목표량 3백 50건을 6월말에 미리 달성을하고 추가목표량 2백 80건을 다시 활달발아 이미 11월말에 1백% 완료했다.

먹는 피임약·루우프가 목표를 초과하지 못했으나 1974년 말까지의 실적을 모으면 대체로 당초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을 것으로 보인다. 자궁내 장치는 이 지역 역시 「부착용문제때문에」 다소 고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김사무장은 실토.

대전시보건소가 이같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팀웍때문」이라고 한 요원이 귀띔. 대전시보건소에는 김선예(金善禮) 선



△한반가족계획을 일선에서 듣는  
요원들(원내는 김재환사무장).



## 날로 어려워지는 가족계획사업

### .....최소 2주 교육은 받아야

가족계획요원의 훈련목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세분 될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자질향상(資質向上)과 기술습득(技術習得)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특히 직업인들에 대한 훈련에 있어서 출속한 목표달성이 능률화에 좋은 눈을 가진 나머지 훈련대상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은 경시한 채 기술훈련에만 급급하기 일쑤다. 그러나 가족계획요원 훈련에 있어서는 기술습득 이전에 요원의 자질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족계획사업이 갖는 방대하고도 심오한 특수성 때문이다.

### 가족계획 계몽은 광범위

사람을 살피는 사업은 모두 그렇지만 가족계획사업은 인간에 대한 계몽교육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있다.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업에 순종하도록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도 사업의 성격이 단순하여 한 두 가지 부분만 열파 성의를 다해 밀고 나가면 목표달성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은 이해시켜야 할 관련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수태조절에 필수적인 모자보건을 비롯하여 인구문제·사회문화적 문제·경제개발문제 등 인간과 관련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총 망라해서 설득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 것이 오늘날의 가족계획사업이다.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복하다고 여겨온 우리나라 사람에게 지금의 4남매는 너무 많으니 <딸아를 구별말고 둘만 낳으라>고 이해시키자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 생각된다.

### 수태 조절에 관한 기술지도

어려운 고비를 넘겨 피임에 찬성하는 태도로 바뀌었을 때는 수태조절에 관한 기술을 지도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피임법을 보급하는 일은 당장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사나 치료약을 주는 질병치료와는 다르다.

우선 모든 피임대상자들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임법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신체상의 부작용을 두려워 한다. 왜냐하면 많은 부인들은 가족계획요원이 권장한 피임법을 사용한 결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요원은 각종 피임법에 관한 정확한 사용방법을 전달해야하고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까지도 데도 멀도 아

너게 적절히 말해주어야 한다.

###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피임방법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은 각종 피임방법을 내놓았고, 계획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사용하기에 용이하지 못하다.

피임방법 자체에 부작용이 적으면 사용상의 불편이 뒤따른다. 최근 피임법으로서 남녀불임술이 권장되고 있지만, 시술비용이 많이 들고 시술장비의 보급에 난점이 있는 등 널리

문제점을 지녔고 원신·출산에 관한 경험도 물론 없다. 그렇다고해서 다른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조리 있게 말 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도 갖지 못했다. 단지 그들에게 갖추어진 것이 있다면 짧은 파부지련한 용기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조직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며 훈련이 사업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 할 수 없다.

### 유명숙 요원의 발언은 당연

지난 번 「가족계획소식」의 <발언대>에서 유명숙 요원이 <지적한 <2년 1회 1주 교육, 너무 멀고 너무 짧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발언이다. 사실상 이처럼 넓고 전문적인 사업기술을 1주일 동안에 다 익히고 일선 사업에 입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다. 어느 훈련기관에도 드문 야간수업을 강행해보지만, 항상 요원이 희망하는 지식을 여유 있게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만다. 2년 만에 오는 재교육도 그들이 일선에서 밤낮으로 일에 쫓긴 나머지 책 볼 시간이라곤 전혀 없는 일과를 보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교육시켜야 할 실정이다.

### 교육 기간 연장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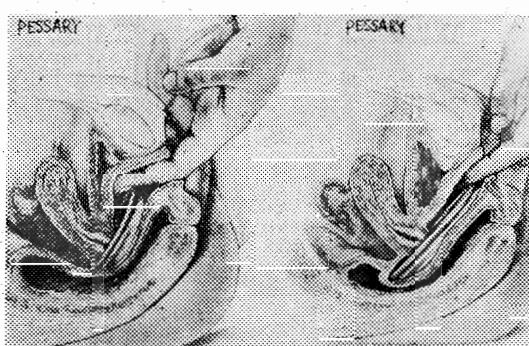
이처럼 교육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고 교육회수도 1년에 1번쯤 교육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절실했는데도 실현하지 못하는 구구한 변명은 여기서 피하고자 한다.

다면 제한된 연구원 시설로 보아 이탈하는 요원의수가 74년처럼 점점줄어간다면 76년에는 2주 연장교육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며 교육내용도 최신피임법의 실지 실습교육에 충실히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미흡하지만 75년에는 1주교육을 계속하게 돼

있고 보수교육생에게는 시범보건소실습을 종래보다 충실히 하고자 한다.

<글·당원 김봉술 훈련과장>



◇요원들에게 수태조절의 기술들을 완전히 습득시키려면 교육기간연장론은 바람직한 얘기다.

보급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족계획사업은 계몽교육이나 피임방법의 보급면에서나 모두 어렵고 힘이드는 사업이다.

### 훈련은 사업에 커다란 도움

이처럼 어려운 사업을 맡고 있는 가족계획요원의 자질은 어떠한가.

피임법을 직접 보급하고 있는 읍면계몽원은 대부분이 간호보조원의 자격에 20세 전후의 미혼여성이다. 그들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짧은 학

### <발언대> 원고 모집

요원 여러분이 가족계획 사업 관계로 견의할 애로 사항이 있으면 2백자원고지 3매 이내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명함판 사진 1매와 같이....

<보발곳·당원 문헌정보과>

## 집단을 위한 계몽요령은?

인간의 집단은 상호 의존의 사실이 인정될 만한 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넓은 뜻에서는 사회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집단의 통일성이나 형태 그리고 일체적인 관계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한다. 집단은 집단이 구성한 형태와 규모 그리고 구성원등에 따라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은 개인상담의 경우와 같이 대상집단의 특성이 파악될 때 한층 더 효과적인 계몽이 실시될 수 있다.

### 짧은 기간 많은 성과 거둬

많은 사람들은 집단계몽이란 용어보다 대중계몽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대중계몽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됨으로 강연이나 매체 즉, 라디오·TV·신문·잡지·전단·포스터 그리고 영화 등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수년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대중 계몽을 통하여 일반적인 지식을 넓리 보급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다.

대중계몽은 집단규모가 크고 대상이 많을 수록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처음 가족계획이 실시되는 지역이나 집단에서는 대중계몽의 내용이 단순화되더라도 그 효과가 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기간동안 대중계몽을 실시해 온 경우에 있어서는 계몽의 내용과 그 방법을 보다 다양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나쁜 풍문에 가장 효과적

대중계몽은 계몽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고, 대상집단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있다.

대중계몽의 효과를 즉각적인 실천을 위한 향상으로 기대를 걸수는 없다.

하지만 가족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그 방법의 인식, 그리고 불필요한 여려 가지 풍문을 해소시키는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 집단 계몽 때 강조 할 점

자와키 (A. A. Zawacki) 는 가족계획을 위한 대중계몽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간추려 보자.

① 대중계몽을 통해 가족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② 가족계획의 필요성 제시 ③ 가족계획 상담장소와 ④ 가족

계획방법과 방법별 부작용 ④ 가족계획에 불필요한 풍문이나 광고의 실제 ⑤ 가족계획의 효과 등을 설명해야 한다.



◇집단계몽은 짧은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둘수있다.

② 가족계획을 실천케하는 동기를 조성하기 위해 ④ 소가족의 잇점 ⑤ 터울조절의 이점 ⑥ 인구증가와 식량·고용·전강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설

명해야 한다.

③ 가족계획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⑦ 국가가족계획사업내용 ⑧ 외국 가족계획사업내용 ⑨ 가족계획에 대한 짧은 인식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저명 인사의 참여사실파 성공한 인물의 실례등을 들어가며 설명해야 한다.

④ 가족계획실천을 위해 ⑩ 가족계획과 인간육구와의 관계 ⑪ 가족계획과 근대화과정 및 교육 ⑫ 가족계획과 생활복지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⑥ 인간생활향상에 관련을 짓도록 하기 위해 ⑬ 스스로 계획해야 할 점 ⑭ 팔·아들구별 없이 두명의 자녀로도 충분한점 ⑯ 피임방법은 임신조절 이란점 ⑮ 가족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을 차례차례로 설명해야 한다.

### 실적 서두르면

### 목적 그르쳐

위의 설명을 보더라도 대중계몽은 내용이나 과정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중의 관심을 끌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대중계몽은 가족계획의 필요성 만을 인식시키는데에 중점을 두어야지, 실천 할 것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목적을 그르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글·당원 지도과 공세권 과장>

### 권장비와 시술비에 대해

### 빨리주고 올려주고 새로주고

### 신성숙



우리 요원들은 루우프나 정판질 제시술에 있어 권장비를 받고 있다. 루우프는 1 건당 1백원씩이고 정판은 3백 원씩이다. 그런데 이 권장비가 권장한 본인에게 잘 지급되지 않는 예가 많다고 한다.

멀리서 사는 내 친구들에게서 흔히 이런 불평을 듣는다. 정당하게 나오는 권장비는 반드시 권장한 본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흔은 권장비가 지급되길 해도 늦게 나오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빨리 지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루우프·정판 등의 권장비는 있어도 「먹는 피임약」의 권장비는 없다. 「먹는 피임약」 권장 역시 가족계획실천에 이바지하는 일인만큼 권장비가 있었으면 없는 것보다는 공평하리라 본다.

모든 물가나 경제성장을 도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때 우리 요원들의 권장비는 오르지 않는지 궁금하다.

골으로 시술비가 시술의사에게 잘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빼뜨릴 수 없다. 권장비처럼 전달안되거나 나와도 늦게 나오거나 1년에 1~2회 한꺼번에 몰아쳐 주는데, 제때 제때 주기를 바란다. 아놓든 빨리 주고 올려주고 새로 주고 했으면….

<충북 읍성군보건소 선임지도원>

1975년 1월 15일 [제 8 호]

74년도 국내외 중요뉴스 가족계획

평가회·인구대회·전시실 개장·출산력 조사 등

1974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인구 및 가족계획 관계 소식이 널리 퍼졌던 해이다. 먼저 국내 뉴스로는 74년도 가족계획사업 평가회와 선언문을 채택한 인구대회, 가족계획분야로는 국제내초회를 문을 열고 교육전시실, 전국출산력조사 등이다. 외국 소식으로서는 「세계인구의 해(1974년운)」에 따른 각종 행사 및 국제협력증진, 세계인구회의를 주요 뉴스가 있었고, 이밖에 인구 및 가족계획과 관련이 깊은 세계적 막강 회의도 있다. 이를 뉴스의 중점내용을 다시 둘러펴보면 다음과 같다.

## 74년도 가족계획평가회

작년 6월 18일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열렸다. 보사부장관·정부판례부처차관·학계 및 판례기판 대표 약 1백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문제·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방향을 모색, 획기적인 사업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이 평가회의는 당시  
인구증가율 1·8%를 76년  
도까지 1·5%로 낮추고,  
81년도까지는 1·3%로 저  
하시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76년 말까지 전체가입인구의  
48%, 81년말까지는 65%가피  
임을 실천토록 해야한다고 강  
조. 이밖에 건의사항과 정부  
각부처의 협조사항 등이 제시  
됐다.

### 이구대회(본소식 1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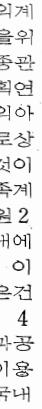
지난 12월 20일 오전 10시 드  
라마 센터에서 열린 인구대회  
는 가족계획연구원, 가족계획협  
회 등 28개 단체가 주최하고  
「세계인구의해」행사추진협  
의회가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는 홍종판(洪鍾寬) 가족계획연구원장이 채택된 「인구대회선언문」을 낭독했다. 인구대회 취지는 ①적정인구 유지 ②인구문제 해결 노력 ③윤락한 가정생활 영위 ④여성을 출산·양육의 고역에서 해방 ⑤사회보장제도 확립 ⑥인구증가율 계속둔화 ⑦국제연합과 긴밀관계 유지 ⑧가계사업에 범국민적인 참여 촉구 등에 있다.

국내최초교육저시식개자

가족계체연구원은 74년 6월  
18일 고재필 보사부장관이 참  
석한 가운데 한국 최초로 개

설된 교육전시실개관 테이프를 끊었다. 74년도 가족계획사업 평가회에 이어 개판식을 가진 이 전시실은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의계  
통교육을위  
해 홍종판  
가족계획연  
구원장의아  
이디어로상  
설된 것인  
다. 가족계  
획연구원 2  
층 실내에  
상설된 이  
전시실은전  
평23평, 4  
면 벽파공  
간을 이용  
해서 국내  
외 인구·  
식량·가족  
계획관계자  
료를 한눈  
에 들여보





◇ 인구대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는 흥종관 가족계획연구원장.

## 전국 출산력 조사

세계출산  
력조사에 참  
여하는 한  
국출산력조  
사기구단은  
작년 9월 2  
일부터 약  
70일간 국  
사업 효과측정 ③ 출산연구  
방법론 개발 ④ 국제간의 자  
료비교에 수월하게 됐다. 경  
제기획원은 표본설치 및 자료  
처리, 가족계획연구원은 훈련  
및 조사, 자료분석 및 보고,  
보건조직행정지원원은 보사부가  
각각 맡았다.

## 1974년은세계인구의 해

74년을 「세계인구의 해」로 정한 것은 유엔이다. 유엔은 70년 12월 제25차 총회에서 1974년을 「세계인구의 해」로 정하고 쿠르트·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 이를 공표했다.

훈련을 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낸다음 총 인구위원회는 「세계인구의해」  
3 1 9 지역 를 통해 인구에 관한 자료  
의33개시, 의 질적향상 ②정부·민간단  
62개군으로 체및 학술기관에 대한 인구  
확정·실시 문제 인식촉구 ③인구·가정  
법·인구·여성·여성·인구학·인구학·인구학

정률 및 정직성이에 관한 요  
파적인 교육실시 ④ 국가계획  
에 인구조절정책 반영 ⑤ 인구관계  
국제협력 중심을 부르짖었다.

## 74년도 1등 수상자들

### 계동원 등 1천 5백명 중

가족계획연구원에서 74년도  
에 교육받은 계몽원 지도원  
기초·보수반 1천 4백 2명중  
21명의 1등 수상자가 났는  
②46기 고정렬(전북옥구군서  
수면사무소) ③47기 손연복(경  
남하동군옥중면사무소) ④48기  
이경자(경남 울주군법서면사  
무소) 등이 교육받았던 것이다.

▲지도원 보수반 2기 조명숙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 ▲지도원 기초반 ① 16기 김영숙 (경기도 성남시 보건소) ② 15기 노명희 (부산시 영도구 보건소) ▲제동원 보수반 ① 10기 박남준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사무소) ② 11기 이종기 (충북 청주시 군수 산면 사무소) ③ 12기 김명자 (전북 임실군 보건소) ④ 13기 윤영숙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보건지소) ▲계몽원 기초반 ① 45기 홍수동 (경기 남양주 구리면 사무소)

②46기 고정렬 (전북옥구군서 수면사무소) ③47기 손연록 (경 남하동군옥중면사무소) ④48기 이경자 (경남 울주군벌서면사무소) ⑥49기 윤상운 (경기도양 평군 옥천면사무소) ⑥50기 김 경옥 (경기도여주군홍천면사무소) ⑦51기 김옥은 (경기도파 주군 금촌읍보건소) ⑧52기 김 진숙 (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보건소) ⑨53기 김혜숙 (전남 광주시) ⑩54기 박연우 (충남 아산군 신창면사무소) ⑪55기 김인덕 (전남 광주시) ⑫56기 최승희 (충북 충주시) ⑬57기 강목자 (전남 신안군 도초면 사무소) ⑭58기 정수자 (충북 진천군 반수면사무소)

세계 외국 히의

유엔이 74년을 「세계인구의 해」로 정하고 주최한 제3차 세계인구회의가 작년 8월19일부터 30일까지 루마니아 수도 بو周转례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박승합보사부 차관 외 4명을 이 회의에 공석파견했지만 이외에도 가족 계획협회 대표등이 업저버로 참석했다.